

<< 우리가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 담당해야 >>



참여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여 우리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복수차장제의 도입 등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국무조정실보다 기능과 조직, 역할이 매우 커졌고 외부에서 우리 실에 거는 기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실은 혁신분야에 있어서도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노력한 결과 초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작년 연말 종합평가에서 상위2단계로 도약하였고 이제는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량과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혁신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부단한 자기변화 노력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을 조화롭게 이루어 내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서만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급격한 변화속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고 맙니다. 정부도 정책의 성과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객인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활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고객과 성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정부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미리 예측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적 개혁' 방식을 도입하고 개혁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혁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부단한 자기개발과 다양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국무조정실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국무조정실이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무조정실 직원 여러분 !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투철한 각오와 주인의식을 갖고 더욱 열심히 우리의 힘을 모아 자신있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역동적이며 활기찬 세계일류의 국가경쟁력을 실현하는 국무조정실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품질높은 정책조정, 조화로운 국정선도

세계일류의 국가경쟁력을 실현하는 국무조정실



핵심목표

고객만족도
제고

정책역량 및
전문성 강화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

혁신의
일상화

10대 혁신과제

행정부 혁신
신도과제 중점 추진
(강령과제)

- 정책분석관리
- 국무계획
- 정보의제관리

혁신 인프라 공고화
혁신 교육 내실화
(Action Learning)

- 관료관리
- 성과관리
- 협력의무관장

자체 과제 실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자체과제)

- 성과관리체계 구축
- 조직의 자의역량 강화
- 딜러는 창의 개선
- 정보의제관리 효율화

OCC 국무조정실

1% 나눔 운동에 동참합시다!!

지난해 우리실 혁신사례로 추진한 불우이웃돕기 운동이 많은 부서로 전파·확산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복권위 사무처에서는 전년 4월부터 매월 2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담당관실에서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모금액(40만원)과 월 1만원씩 자율적으로 납부하여 4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임회에서는 자체적인 성금을 마련하여 독거노인 두분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새미래에서도 이달부터 매월 1만원씩 모금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아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미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 누구에서,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하여 잘 몰라서 또는 고민만 하시다가 참여치 못하신 분들 많이 모시고자 1% 나눔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직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동참방법으로는

우리실 모임 또는 조직별 (산악회, 테니스회, 00 심의관실...)로 모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개인별로 참여하실 분들은 전선미담(jenny@opc.go.kr; 구내 22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님들의 동참을 기대하여 동참하신 분들은 매월 발간되는 새미래 소식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미래](#)





“참여하는 혁신”, “실천하는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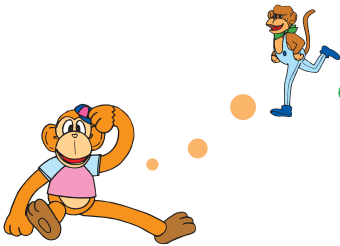
혁신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2005년도 혁신아이디어

2005년 1월~4월

- ▶ **결재단계를 3단계로 정형화** (교관규 외교안보)
 - 결재 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공감
 -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3단계 이상 결재 금지 등 정부조직 체계의 개편없이 결재 단계만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 혁신팀 주도로 위임전결규정개선, 서면보고 활성화, 메모보고 활성화, 직무성과계약서 작성시 역할분담 등으로 해결 노력
- ▶ **법령집 비치 금지** (소재속 농수산건설)
 - 동일 조정관실이라도 사무실이 여러층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업무특성상 법령집이 반드시 필요한 부서(예 : 의정실의관실)가 있을 수 있음
 - 추후 조정관실 의견을 취합, 법령집 비치를 최소화 추진예정
- ▶ **시간외 근무시간 조정** (김세용 복지)
 - 자정 이전에 초과근로를 체크하지 못한 경우라도 다음날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면 해결되므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
 - 예산절감 문제뿐만 아니라, 4시간밖에 인정 안되는 초과근무로 인해 새벽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 **국무조정실 고객만족도 평가** (김화산 규제)
 - 금년 혁신과제중 정책조정만족도 조사, 회의만족도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 추진중에 있는 과제임
- ▶ **당직근무 1인으로 축소** (김화산 규제)
 - 총리실 당직근무는 사실 당직근무가 아니라 상황 근무이며, 2명이 근무하게 된것은 그전에 1명 근무시 발생한 문제(상황보고 누락 또는 지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1인으로 축소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체제를 유지
 - 2004년에도 동일한 아이디어가 제시된바 있음
- ▶ **회의장 예약시 설비안내** (서진희 환경) : 즉시 반영
- ▶ **각종 관리시스템 입력권자 자동대체**
 - 우리실에게 관리하는 총리지시사항, 정책의제관리, 정책카드 등의 시스템의 경우 후임자가 아이디 신청시 신청서에 전임자를 표기해줄 경우 자동으로 대체기로 결정
 - 다만, 정책조정시스템, 대통령지시사항시스템은 우리실 관할 시스템이 아니므로 개선이 어려움
- ▶ **급여중 천원단위 모아 불우이웃 돕기** (김정옥 규제)
 -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몇몇 부서는 기 시행중 (예 : 총무 혁신팀의 경우 한달에 만원씩 공제중)
- ▶ **KT 콜보너스 점수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 (김기영 심평)
 - 아이디어를 제시한 심평의 김기영 주임의 주도로 각 조정관실에서 함께 협의하여 추진키로 결정
- ▶ **화장실 비데설치** (장진수 재경금융)
 - 현재 행자부에서 비데설치 확대방안을 계획중에 있으므로 중박될수 있음. 행자부 계획에 따르면 가급적 금년중 비데설치 완료예정 [새 미래](#)



“100 마리째 원숭이 현상.....~*”

〈 복권위원회 사무처 실행동아리 〉

미국의 과학자 라이을 왓슨이 말한 ‘백 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그 행동은 그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을 넘어 확산되어 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1950년 일본의 미야자키현 고지마라는 무인도에 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원숭이 20여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먹이는 주로 고구마였습니다. 원숭이들은 처음에는 고구마에 묻은 흙을 손으로 대충 털어내고 먹었는데, 어느 날 한 살 반짜리 젊은 원숭이 한 마리가 강물에 고구마를 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이 하나, 둘 흉내내기 시작했으며, ‘씻어 먹는 행위’가 새로운 행동양식으로 정착해 갔습니다. 고구마 씻기를 하는 원숭이 수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자 이번에는 고지마섬 이외 지역의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행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하게도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는 원숭이들도 역시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전혀 접촉이 없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새로운 행동양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혁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고구마 씻기’(혁신)를 하기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하면 이 것이 새로운 행동양식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서는 모두가 참여하여 (WHO) 쉬운 것부터(WHAT) 철저하게(HOW)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행동아리(4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가치창조팀(정성환 과장 외 6명)에서는 기존 서류 중심의 복잡한 업무프로세스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복권기금사업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참여와 신뢰팀(최경화 과장 외 4명)에서는 시민평가단, 복권정책 공동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복권정책과정에 국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받는 복권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일신우일신팀(정연명 과장 외 5명)에서는 국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적 위원회 운영 매뉴얼 제작, 결재 1일 종결제, 보고서 작성 편의방 개설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고객감동팀(하현봉서기관 외 5명)은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전화 응대요령, 고객상담 매뉴얼 제작, Happy call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나의 작은 변화가 혁신의 시작’이라는 말은 참으로 많이 하면서도 진정으로 먼저 실천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가 ‘첫 번째 원숭이’가 될 것이며 ‘백 마리째 원숭이’, 더 나아가 ‘천 마리째 원숭이’를 만들 것입니다. 새미래



고금의 혁신사례 권별(1478~1548, 성종 9~명종 3)

쉬울 때 어려움을,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해야...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붙잡으면 간직되고 놓으면 얻지지며, 시도해도 없이 드나들며 가는 곳을 알 수 없는게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마다 마음은 붙잡고 놓는 것이 한결같지 않지만, 선과 악은 모두 여기서 나뉩니다.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을 보존할 수 있고, 끝에 가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간직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선악이 결부되어 있으니,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탕은 혁명을 일으켜 하나라를 대체해 상나라를 세웠는데, 도에 따라 편안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탕이 시작을 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정치에 힘써서 하늘의 마음에 들어맞았으며, 너그럽고 어질어서 온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것에서 탕이 마무리를 잘했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쉬울 때 어려움을 생각하며, 작은 일에서 시작해 큰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작할 때는 마칠 때를 생각하고, 시작을 잘했으며 끝마무리도 잘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이 유지한다면 오래도록 나라가 잘 다스려져 편안해질 것입니다.

“조정은 한 나라의 근본이고, 임금의 조정은 조정의 근본이며, 임금의 마음은 또한 임금의 근본이다. 그러니 마땅히 즉위한 처음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간직하는 요령은 경건에 있고, 경건의 요령은 혼자 있을 때 조심하는 것에 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는 정성스럽고 한결같은 의오묘한 이치를 밝히기 위해 더욱 노력하시고, 편안히 도에 뜻을 두어 경건하지 않을 때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되면 참으로 사업이 면면히 이어질 것입니다. 새미래

공기업의 혁신사례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고객의 불편을 없애 주는 것을 혁신으로 판단하고...

공기업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객의 불편을 없애 주는 것을 혁신으로 판단하고 고객의 범위를 1,800만가구의 일반고객으로 확대하여 고객이 아닌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 주는 것으로 진정한 혁신을 추진중에 있음.

- 가스안전공사와 전국 32개 도시가스업체 사이에 소비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협약 체결
- 민원편의를 위한 전국단일 대표전화인 '1544-4500(사고제로)' 도입
- 홈페이지를 이용해 '고객불편 절반으로 줄이기' 운동도 추진

-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 제도를 도입 올해 처음으로 외부전문가 2명을 비상임 이사로 선임
- 열린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만으로 구성된 '청년이사회'를 도입 밑으로부터의 혁신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5년 531건이던 가스사고가 지난해에는 110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망 5명 이상인 대형사고(1급 사고)도 2년 동안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 국내 고객만족(CS) 분야에 서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수상과 16개 공기업중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새미래

‘혁신 98’, ‘도약 99’, ‘성공 2000’이라는 중기 비전과...

퇴출대상 1호, 총부채 4,700억기업에서 3년만에 차입금 제로(0)
영업수익률 1위 기업이 되기까지의 혁신과정

한국기업 최고의 단계적·실천적 혁신 노하우는 기업혁신의 성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CEO 스톡 1위인 서두칠 사장의 경영 마인드와 리더십도 함께 배울수 있다

‘혁신 98’ ‘도약 99’ ‘성공 2000’이라는 중기 비전과 ‘전체가, 동시다발로, 숨가쁘게’라는 원칙에 맞춰 진행. 결국 한국전기조자의 직원들은 7가지 혁신활동을 통해 구조조정에 성공했다.

첫째, 기계·설비 라인의 구조조정이다. 현장은 그 제품의 문외한이 보더라도 한눈에 물류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제품의 구조조정이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중소형 텔레비전 유리만 생산하던 구조에서 탈피, 대형 유리나 컴퓨터 브라운관 유리로 바뀌어 나갔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셋째, 금융의 구조조정이다.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고 고금리자금은 우선적으로 상환해 금융부담을 줄여 경영수지를 개선했다.

넷째, 노사관계의 구조조정이다. 기본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은 쟁취·갈등 관계가 아니다. 직원은 회사의 발전방향과 같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체며 회사는 열린 경영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다섯째, 인력이다. 97년 한국전기조자 파업의 직접적인 동기는 용해로에 불이 꺼지면서 고용에 불안을 느낀 사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자리의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흔히 구조조정하면 일반적으로 감원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전기조자는 의도적인 감원 없이 15%의 자연 감소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공정간 전환배치를 통한 인적 자원의 효율 제고, 지원부문 분사 등을 통해 자연감소정책을 취했다.

여섯째, 역시 살 길은 기술이다. 외국기술에 의존해 값싼 로열티를 지불하는 구조를 탈피, 자립기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98년에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시장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마지막은 사고방식의 변혁이다. 직원들의 부정적 사고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시켜 나갔다. 이는 구조조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다. 직원들의 의식변화가 없었다면 혁신활동은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한국전기조자는 사장에서 말단 직원까지 올해로 4년째 하루 일과를 아침 6시에 시작한다. 그리고 명절은 물론이고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다. 이런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세계 제1이라는 찬사와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새미래



외국정부의 혁신사례



영국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소개

- 영국의 수상작속하 전략본부(Stratgy Unit)는 2004.7.1 정책의 수립과 관리에 필요한 '전략생존 가이드북(Stratgy Survival Guide)' 수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 2005년 1월 행정자치부 정책혁신과는 이를 번역· 요약하였는데, 새미래 팀은 국무조정실의 정책담당자가 성과관리 및 정책 품질 관리를 위해 참고하시면 유익한 내용이라 판단해 동 정책혁신과의 동의를 얻어 국무조정실 게시판에 게재하오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미래

혁신 추진 동정

■ 4월 16일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1차 교육이 기획관리조정관실, 경제조정관실, 사회문화조정관실 등 추진 동아리 구성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실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BPR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현상업무 구조도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 4월 16일 [혁신의 날 운영]

세계적인 석학 미국 버클리대 김성호 교수님을 초빙하여 생명공학의 현재와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BT(Bio -Technology)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 4월 21일 [조직의 지식역량 강화]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수립을 위하여 실무자급 Focus Group Interview 가 실시되었다.
이 날은 리더십 역량조사를 위한 1차 설문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상 빈도가 높은 역량을 압축하고 역량을 새롭게 분류,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향후 워크샵과 전수조사를 거쳐 교육체계를 완성하고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53만이 함께하는 체중줄이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권장하는 등 전 주민이 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또 하나의 혁신의 주제이다”

“뚱뚱해지는 건 싫어요~”

“날씬하고 건강해지고 싶어요~”

최근 바쁜 생활로 인한 운동부족, 불규칙한 영양섭취로 인해 도시인들의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비만은 비만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 보다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질병들은 한창 일해야 하는 중장년층의 건강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림은 물론 각종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까지도 위협할지 모르는 일이다.

개인의 건강도 이제는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2002년 6월에 나온 서울시민 보건지표 조사결과 강서구민의 비만도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규칙적 운동실천율과 적정체중 인구비율이 서울시 전체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서구는 다이어트를 주민과 함께 시작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 주민이 참여하는 “체중줄이기”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보건소 내에 전담조직을 조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비만케어관리자 교육(15주)을 받도록 하였다.

병원, 구민체육센터, 유료민간운동시설, 학교, 복지관, 어린이집 등 관련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이어트에 필요한 장비도 보완해 나가는 한편,

비만도 측정 후 주민 1,000명을 표본관리자 분류,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아들이 보다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록 헬스크럽, 수영장 등 17개의 운동시설을 지정하였다

어린이 체조 보급, 날씬이 운동 영양교실 운영, 우리춤 체조 교실 운영, 직장인 운동동호회 지원, 주부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등 성별·연령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KBS와 함께하는 주민 살빼기 건강프로젝트>를 반영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동안 구청, 지역주민, 관계기관 협회 등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구민실천율이 2002년 6월, 16.8%에서 2003년 12월에는 41.1%를 기록할 정도로 운동하는 구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됨으로써 국민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보건행정의 모델로 타 보건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 또는 작은 성과 중 하나이다.

주민들의 보다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체중줄이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새미래



재경금융심의관실 혁신사례 장진수 주무관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한 축구경기 관람

매일 야근을 해도 부족할 만큼 많은 업무 속에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유지하며 여유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 디딜 틈 없이 봄비는 지하철역을 겨우 빠져나와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도착하였다. 3월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경기장 입구는 우리나라 대표팀과 우즈베크 대표팀간의 2006년 독일 월드컵 예선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상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축구경기에 대한 열기를 실감 할 수 있었다.

우리 재경금융심의관실 일행은 인파에 떠밀리다 시파하여 경기장 안으로 입장하였다. 대낮처럼 밝은 조명과 빛나는 잔디 빛깔은 내 마음을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였고, 응원단의 붉은빛은 한국축구의 뜨거운 열기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양팀 선수단이 입장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니 엄숙함이 감돌고 비장함마저 느껴져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은근히 자랑스러웠다. 경기전 행사가 모두 끝나고, 경기시작 휘슬이 울리면서 우리는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붉은악마 응원단이 미리 준비한 두루마리 화장지를 힘껏 하늘 높이 던졌다. 이 휴지던지기에는 네티즌들의 공식명칭으로는 휴지폭탄이다. 4만여 명의 관중들이 일제히 던지는 그 모습은 TV로 볼 때도 아름다웠지만 경기장 안에서 실제로 보아도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이 휴지폭탄처럼 우리의 공격력이 터지기를 기원하면서 경기가 시작되었다.

2002년 월드컵 4강전력을 앞세운 우리나라 대표팀은 경기초반부터 맹공을 퍼부었고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골은 쉽게 터지지 않았고 결정적인 찬스

가 몇 번이나 무산되며 안타까움을 더해갔다. 그래도 응원단은 '파도타기 응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짝짝짝짝) 구호' 등을 외치며 계속 응원했다. 우리 일행도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응원하였고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대표팀은 연속으로 두골을 몰아넣으며 승기를 잡았고, 경기 끝날 무렵 수비진의 실수로 한골을 헌납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2:1로 기분 좋은 승리를 하였다.

매일 야근을 해도 부족할 만큼 많은 업무 속에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유지하며 여유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한 이번 축구경기 관람은 나의 기억 속에 간직될 좋은 추억일 뿐만 아니라 나를 지치지 않게 하는 활력소임에 틀림 없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 맡겨라!

인적자원개발 · 연구개발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고 함)은 정부 부처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연구개발정책을 상호연계하고, 산 · 학(연) · 관(중앙/지역협력 촉진)을 통한 고용증대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년 9월 3일 대통령 훈령(제 126호)에 의거 설치되었다.

기획단 사무실은 동원빌딩(종로구 당주동 소재/약도참조)내 2층에 있으며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단장 포함 17명, 3개팀(총괄 · 인력수급팀, HRD · R&D팀, 자격제도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기획단을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단장에는 고용(관리관)단장께서 재임 중이며, 김효명 국장(국조실)은 기획단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휘 · 운영과 동시에 총괄 · 인력수급 팀장도 겸하고 있다.

「총괄 · 인력수급팀」은 윤현주(5급/국조실), 조병화(5급/인사위), 배동인(5급/교육부), 정현직(6급/국조실), 장영 · 이은경 · 김지애(이상 여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단 운영과 국가인적자원수급 전망제제 구축, 인적자원혁신본부 출범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RD · R&D팀」은 김선호 팀장(4급/교육부), 임승철(4급/과기부), 남동우(5급/과기부), 예혜란(5급/교육부), 이재원(전문위원/정통연)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 · 학(연) · 관 협력강화 및 조정,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제도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자격제도팀」은 김병욱 팀장(4급/노동부), 최태호(5급/노동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격정책에 관한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위와 같이 우리 기획단은 여러 부처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로 구성되어 타 부처와 달리 소속감이 부족한 면도 있으나 직원 상호간의 신뢰감과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동시에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새미래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직장생활! 국무조정실 여직원모임 “하나임”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발걸음을 함께하며 직원 서로간 따뜻한 격려와 충고, 친목을 돈독히 하는 여직원의 모임입니다.

시대의 요구보다 앞서려는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활동 및 배움터 지원 등으로 내실화를 다지고 있으며, '96년 주말 장애우 재활시설인 『벤엘의 집』 봉사 활동 및 복지관 건립기금 마련 후원, '02년 『국무조정실 30주년 기념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 등 이웃사랑 실천에 몸과 마음을 함께 하였으며,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달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임회는 지금까지 여직원 모임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남녀라는 사고의 틀을 깨고 남자 직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신선한 생각과 준비된 마음가짐, 적극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임회에 동참하실 남자 직원들은 언제든지 특별회원으로 모시겠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새미래

※ 하나임 현황(회원:50명)

- 회장 : 황윤경(총무팀)
- 총무 : 정현승(혁신팀)



인사동정

3. 17 ~ 4. 20

▶ 3. 23 조영택 국무조정실장님 취임

▶ 3. 24 기획차장 · 정책차장 신설에 따른 전직원 일괄 소속변경 발령

- ▶ 3. 29 • 행정사무관 박영두 총괄심의관실 근무를 명함
- 기획차장실 기능9급 박상희 국무조정실장실 근무를 명함

- ▶ 4. 2 • 행정사무관 이재훈, 행정사무관 이교영, 행정사무관 김종수 정책상황실(공공기관 지방이전 상황팀) 지원근무를 명함

- ▶ 4. 4 • 규제개혁조정관 박기종 기획관리조정관에 보함
- 심사평가조정관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에 보함
- 국무조정실 관리관 김춘석 주한미군대책기획단 파견근무를 명함('05.4.4~'06.4.3)
- 국무조정실 이사관 김석민 관리관에 임함 심사평가조정관에 보함
- 경제조정관 박종구 개방형직위규정에 의거 경제조정관임용기간을 연장함('05.4.4~'07.4.3)
- 정책상황실 서기관 최훈 행정자치부 전출을 명함
- 행정자치부 서기관 김진홍 정책상황실 근무를 명함
- 심사평가조정관실 기능 10급 박지현 규제개혁조정관실 근무를 명함
- 규제개혁조정관실 기능 9급 이화선 규제개혁2심의관실 근무를 명함
- 규제개혁2심의관실 기능 10급 이지숙 국가평가인프라구축단 근무를 명함
- 정책상황실 기능 10급 정명희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근무를 명함

- ▶ 4. 8 • 국무조정실 이사관 신정수 정책상황실장에 보함
-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류종렬 노동여성심의관에 보함

- ▶ 4. 14 • 국무조정실 서기관 원정희 국제청 전출을 명함
- 국제청 서기관 서대원 조사심의관실 근무를 명함

- ▶ 4. 15 • 행정사무관 장영규, 행정사무관 이교영, 행정사무관 천명환, 행정사무관 박오건 서기관에 임함

- ▶ 4. 16 • 행정주사보 이정환, 행정주사보 김세필, 행정주사보 오선숙 행정주사에 임함
- 전산주사보 홍병진 전산주사에 임함
- 의정심의관실 서기관 민용기 국무조정실장실 근무를 명함
- 국무조정실장실 서기관 이정원 의정심의관실 근무를 명함
- 산업심의관실 서기관 김충호 조사심의관실 근무를 명함
- 규제개혁2심의관실 서기관 박창호 산업심의관실 근무를 명함
- 국무조정실 서기관 손동균 규제개혁2심의관실 근무를 명함



박영두



박상희



이재훈



이교영



김종수



박기종



박철곤



김춘석



김석민



김진홍



박지현



손동균



이지숙



정명희



신정수



류종렬



장영규



이화선



천명환



박효건



이정환



김세필



오선숙



김충호



박창호



2005년도 국무조정실 직장협의회 사업계획 추진



금년도 국무조정실 직장협의회 사업계획이 총 50명의 회원중 3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장협의회 정현직 회장

1. 직장협의회 위상 강화

□ 장관님 정기·수시 면담 실시

- 정기면담(반기 1회)시 직원 건의사항 수렴 전달
- 직협 운영관련 주요사항 간담 협의

□ 직장협의회 협의구조 강화

- 간부 워크샵 실시(상반기 중)
- 간부회의 정례화(월2회)

□ 직장협의회 회칙 개정4월 중

- 직장협의회 집행기구 개선
 - 회원간 역할 배분을 활성화하여 소속감 고취 및 문제의식 공유
- 의견수렴을 통한 직장협의회 회비 조정

□ 타 부처 직장협의회와 연대 강화

- 전문련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정보·인적 네트워크 형성
 - 타 부처와의 정보공유 및 연대를 위한 토대 마련
 - 향후 공무원노조 관련 대응방향 모색

□ 직협 자문위원단 구성

- 준회원을 중심으로 사업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지원

2. 직원복지 향상

□ 직원 교육·문화 자질 향상

- 문화, 관광 체험 기회 확대
 - 각종 연수, 교육 프로그램에 직협 회원 적극참여 추진
 - 섭외활동을 통한 공연관람, 문화체험 정보 및 기회제공
 - 유학, 대학원 진학 등 교육기회 확대

□ 선택적 복지제도 정착 노력

- 금년부터 실시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다양한 활용방법 홍보
 - 부처별 현황파악을 통한 우수 활용사례 전파 및 활용실적 평가

□ 동호회 및 소모임 활동 지원 확대

- 동호회 현황파악 및 자료 Data-Base 구축
 - 각종 동호회 및 비공식 모임(여직원회, 도솔회 등)과 직협간 의사 전달 통로 마련
 - 의견수렴 및 지원 창구로 활용

□ 각종 경조사 지원 지속 확대

- 기존 경조사 지원 규모 강화(회칙 개정시 반영)
- 회원 승진·영전, 해외여행시 등 지원폭 확대 및 퇴직 기념행사 개최 건의 추진

3.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

□ 근무여건·환경 개선

- '가정의날', '주5일근무제' 등 준수 점검
 - 야근·휴일근무 지양 유도를 통한 직원 '삶의질' 향상
 - '주5일근무제' 실시 초기 집중점검을 통한 조기정착 유도
- 여직원의 자유로운 여유공간(전용 휴게실) 마련

□ 직원 업무수행 성취감 고취

- 6급 이하 직원 업무역량 확대
 - 6~7급 고위업무 부여 의무화 지속 추진
 - 기능직 여직원 예산·회계업무 수행 정착 노력

□ 직원 단합행사 실시

- 춘계 및 추계 단합행사 실시
- 단위별(조정관실, 기획단 등) 회원 소모임(야유회 등) 적극 지원

□ 희망보직 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

- 인사시 직원별 관심분야 반영을 통한 업무의욕 제고
- 관심분야 교육기회 부여, 업무능력 집중 배양을 통한 개인의 중장기 성장비전 마련 지원

4. 제도개선 등 기타

□ 공개채용 및 전입시 기준 명확화

- 공정한 기준에 의거한 채용으로 우수인력 확보
- 기존 직원의 복무상 안정성 확보 및 전입자의 적응기간 확보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 6급 이하 직원 파견근무(국외, 민간 등)제도 추진

- 민간회사, 제외공관, 국제기구 등 파견근무의 폭 확대(6급 이하)

□ 균형인사 제도화 추진

- 업무경력 및 능력 등 긍정적 평가를 통한 균형인사 제도 정착
 - 적절한 인사수요를 감안, 무리한 전입 및 수습직원 영입 지양

□ 파견자 점검 등 직원구성비 개선

- 파견자 비율을 줄여 조직에 및 주인의식 고양
- 전문적 정책조정이 중심의 국조실 고유패버 양성으로 조직결집력 제고 

크누아에서 藝術의香氣에 취하다.



교육문화심의관실
성호승

예술학교 측에서도 외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면을 통해 체험학습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등잔 밑이 어둡듯이 문화부에 근무하면서도 가본 적이 없었던 한국예술통합학교 서초동 교사(음악원·무용원)를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면서 지난 3월 22일 체험학습을 통해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 않았습니 다. 아마 저의 평생 추억으로 수중히 간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체험학습 기회에서 얻은 유연한 사고는 국무조정실 비전인 “품질 높은 정책조정과 조화로운 국정선도”, “세계일류 국가경쟁력을 실현하는 정부구현”에 밑거름이 되고도 남음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가 중심이 되는 고도소비스사회라고들 합니다. 역사학자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없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라고..

대부분의 수업이 크누아홀에서 진행되었는데, “크누아”가 무슨 의미의 단어인지 궁금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예술”과 관련된 神의 이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문화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예술학교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예술종합학교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의 영문약자에서 크누아(KNUA)를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예술성이 흠뻑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체험학습은 최준호 교수님의 “예술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김선희 교수님의 “발레의 이해”, 민경찬 교수님의 “일본과 북한에서의 우리 민요”, 그리고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실기수업과 우광형 교수님의 “세계악기 여행”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실기수업 중에서 제가 참가한 “우리장단 따라하기”는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물놀이로 전세계에 우리나라를 널리 알린 김덕수 교수님에게서 직접 강의를 듣는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수업이 종료된 후 교수님에게서 사인을 받는 것과 기념촬영하는 것도 있

결론적으로 크누아에서의 체험학습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예술 정책의 품질 제고,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미래



진정한 리더십의 선봉장 남세현 국장님을 칭찬릴레이의 칭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심사평가제도심의관 남세현〉

지난 4월4일 오전8시, 국조실의 혁신워크샵에 참여하기 위해 나에게 배정된 버스에 오르자 남세현 국장님께서 “새미래 창간호에서 신사무관 관련, 좋은 글 봤어요” 라는 격려 말씀을 들었을 때 까지 영문도 몰랐었는데 막상 새미래를 펼치고 보니 수년전의 사진과 함께 “칭찬릴레이”에 제가 소개된 것을 보고 솔직히 쑥스럽기도 하고 제가 국조실의 많은 동료 중에 칭찬릴레이에 추천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 숙연해 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더더욱 열심히 생활하여 달라는 파견 직원에 대한 배려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저는 오늘날의 시대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선봉장 “남세현 국장님”을 칭찬릴레이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의 공통된 말인 즉, “몇 개월만 함께 근무하면 구성원 모두의 교주이자 돌격 대장(?), 그리고 소속 모든 직원들을 열렬한 팬으로 흡수해 버리는 저력, 저런 분 같으면 공직생활을 오래해도 참 멋있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 이라고들 합니다.

누구든지 반갑게 맞아주고, 노력하고 연구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을 가지고 무리없게 해결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항상 상대방의 장점을 부단히 찾고, 때에 맞는 의미 있는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지혜로움과 지식을 함께 갖춘 님.

언제나 바닷물 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고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죠.

외모도 썩이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운 님,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아는 님, 내가 실망시키더라도 언제나 날 믿어 줄 것 같은 님, 언제라도 소주 한잔 하고픈 편안한 분으로 모든 면에서는 장점만이 돋보이는 분,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립 매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범상한 분,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럽기도 하는 분(?)인가 봅니다.

말이나 글로서 모든 장점을 형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만한 직위에 있다면 저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새삼 제가 그런 훌륭한 분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분을 아시는 분이면 이글에 공감하리라 확신 합니다.

요즘 일부부처의 서열 파괴식 팀제 운영 등 “혁신”의 키워드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칭찬릴레이의 칭찬대상자로 전혀 손색이 없으시죠. 정말 칭찬 받아서 마땅하신 분으로 팀원들 모두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이글에 공감하시면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시오.

또한,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모두 연구하고 벤치마킹 해봅시다.

28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님을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개인적으로 더 많이 업그레이드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국조실 1년 6월의 파견기간 동안 님과의 근무가 어찌면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이며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더라도 많이많이 자랑하고 학습-전파하겠습니다.

새미래 창간호를 통해 칭찬릴레이에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칭찬할 기회를 얻어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한번 더 고맙게 생각하며, 지금 아니 앞으로도 그 언제까지 국경현안해결의 선봉에서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국조실의 모든 분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국무조정실 화이팅! 새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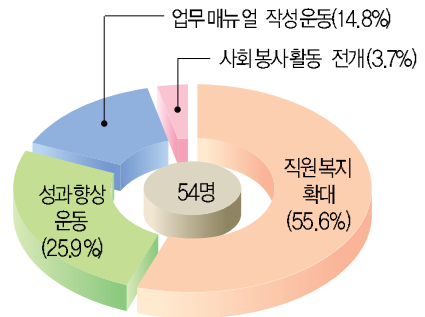
새미래 활동방향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

우리실 주니어보드 새미래에서는 우리실 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미래 활동계획의 우선순위 및 과제 등을 결정하고자 국무조정실 전 직원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무조 정실 직원중 54명이 참여하였으며 새미래 활동계획 중 우선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직원복지확대(30명, 55.6%)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성과향상(POP UP)운동(14명, 25.9%), 정책품 질관리를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운동(8명, 14.8%), 사회봉사활동 전개(2명, 3.7%)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2기 새미래가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혁신확산운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직원복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새미래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새미래는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직원복지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성과향상운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도 병행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새미래



제2기 새미래가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제안내용

번호	제 안 자	제 안 내 용
1	농수산건설심의관실 정형	혁신 확산, 체화운동 전개
2	총괄심의관실김민	버려야 할 일 선정 집중 실천 될 버려야할지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 부족
3	규제개혁1심의관실 이순아	실 직원들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추진
4	심사평가1심의관실 김기영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봉사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하더라도) 사회봉사의 분위기를 확산
5	일반행정심의관실 권용식	국무조정실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성과향상 운동 전개
6	재경금융심의관실 김금남	조직의 기초단위의 의견을 상의층 및 관련부서에 가감없이 잘 전달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바람직 하지 못한 관행을 고치려는 노력을 선도하시길....
7	사업관리과 최시복	직원들의 혁신 핵심역량 강화방안
8	환경심의관실 강석원	①성과향상 운동(POP-UP) 전개, ② 정책품질관리를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운동, ③ 직원복지 확대
9	복지심의관실 황규진	과제만 보지 말고,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더 중요 과제 중심의 사업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밖에 없어요.
10	노동여성심의관실 최기조	직원들의 실질적인 정보지가 도었으면 한다.
11	규제개혁1심의관실 김희산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12	혁신담당관실 유진재	새미래소식지 발간 등 가시적인 것도 좋지만 1년 사업으로 업무에 있어 큰 성과를 내야합니다. 성과향상을 위한 문화운동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14	주한미군대 책기획단 김병철	직장이 힘들고, 두렵고, 불편한 곳이 아닌 늘 신바람나고, 즐겁고, 일할 맛 나는 행복창조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15	총괄심의관실 이련주	직원의 단합과 사기양상을 위한 사업
16	주한미군대 책기획단 남기수	혁신에 대한 노력의 결과 및 성과들이 조직과 각 개인에게 체득될수 있도록 해야함. 변화 또는 그 용트림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요원이나 조직내 속해있는 각 개인들중 그 누구하나라도 모른다면 서로 반성해야 함.
17	주한미군대 책기획단 신강민	성과향상 운동(POP-UP) 전개
18	복권정책과 하현봉	우리실 직원들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서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실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실행하도록
19	복권정책과 손방	혁신추진과제 정착
20	농수산건설심의관실 최태용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직원들의 의식개화를 위한 노력이 선결되었으면 합니다.

번호	제 안 자	제 안 내 용
21	주한미군대 책기획단.유희종	위의 과제들은 혁신팀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닌가요. 혁신팀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22	북권정책과.박효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23	심사평가2심의관실.김중수	편안함과 정서 순화를 위한 감동적인 글 개재
24	주한미군대 책기획단.김태도	직원들이 지극심을 가지고 근무할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충별 휴게실 운영 등
25	재경금융심 의관실.이용석	불필요한 일줄이기 등 업무혁신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6	외교안보심 의관실.최재원	조직내에서의 형식주의, 권위주의를 타파하여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합시다.
27	환경심 의관실 이상진	정책 품질관리
28	북권정책과.이가형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인 혁신 추진(내실 지향)
29	재경금융심 의관실.육현수	잘 못된 관행 바꾸기
30	노동여성심 의관실.김금련	불필요한 일 버리기
31	기금운용과.박백봉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32	농수산건설 심 의관실.안충환	직원 서로 알기
33	총괄심 의관 실양찬희	TOP-DOWN식의 전체적이고 일사분란한 혁신보다는 각 부서 자율적 상향적인(BOTTOM-UP) 혁신 추진
34	혁신담당관실 장영규	BSC 성과관리 추진에 맞추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직원분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	심사평가2심의관실.천명환	설문 1항의 "우선 먼저추진해야할 과제"와 설문2의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를 구분하기 어려워 답하기 곤란합니다.
36	2005광복60년추진기획단 조연갑	조직활력 제고
37	정책관리심 의관실.남세현	정책차장제의 실시로 보고단계가 더 늘어남에 따라 가급적 구두 또는 메모 보고를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사고한 상황보고를 정식문서로 작성할 경우 시간낭비를 초래하게되어 정말 중요한 일에는 늘 시간을 나눌수 없는 경우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임
38	환경심 의관실 서진희	업무매뉴얼 작성운동
39	농수산건설 심 의관실.소재숙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면 좋겠습니다. 새미래 화이팅~~~

번호	제 안 자	제 안 내 용
40	농수산건설 심의관실, 최혜민	직원복지 향상
41	사회수석조 정관실 김화영	일 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기개발기회 확대 및 직원 복지 및 후생시설 확대
44	규제개혁1 심의관실, 김보열	조직문화 혁신 전담 추진
45	재경금융심 의관실 서원석	직원간 화합도모
46	복권위원회 사무처 허신옥	자기 업무와 관련, 대 국민 또는 대 고객 편의 입장에서의 처리방안과 업무의 능률성 향상방안에 대하여 혁신의지를 가지고 강구, 추진하는 자세 견지.
47	농수산건설 심의관실, 서해동	업무, 회의, 보고체계 단순화 및 효율화
48	농수산건설 심의관실, 이성훈	공휴일에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직협과 유사한 활동 요망
49	재경금융심 의관실 권태성	새미래는 글자가 의미하는 그대로 우리 조직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차질없이 대응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 관료조직의 경직성, 변화에 대한 저항등 취약한 변동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단기적인 실적 위주의 과제추진 보다 조직의 역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를 찾아서 서서히 분위기를 확산필요. 비단 업무관련내용이 아니라도 조직에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는 작은 것 부터
50	기금운용과, 문태선	국무조정실 혁신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가칭 '혁신 현장' 제정을 추진과제로
51	정책관리심 의관실 신상호	변화하는 조직에 맞추어 국조실직원과 파견직원간의 역할, 원칙 등 세부기준 (별도, 비별도 등)을 마련하는 등 조직의 중 · 장기 비전과 역할 재조명 마련 건
52	복지심 의관실 김세용	연가 찾아먹기 운동
53	총괄심 의관실 임종순	성과관리제도 정착



새미래 활동 중간보고

- 국무조정실의 주니어보드인 새미래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난 현재 이렇다할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지만 바쁜 와중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 12차례 모임을 갖고 활동계획을 세우고, 소식지를 발간하고, 정부 및 민간 혁신 사례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등 우리실 혁신분위를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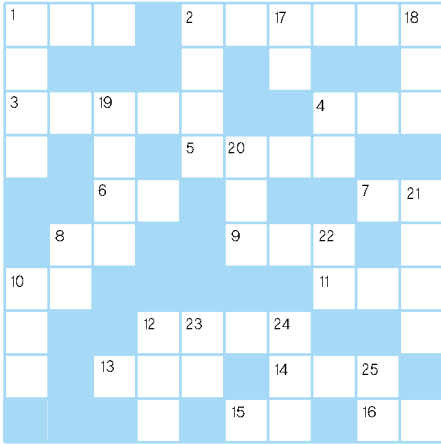
□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보면

- ▶ 공공부문, 대기업, 벤처기업 등 분임을 정하여 분임별 혁신사례를 조사하여 소개한 바 있으며,
 - 웅진코웨이 가 비즈니스 모델 전환(판매방식→임대방식)하는 등 발상전환으로 최우수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사례
 - 美 3M社의 업무 시간 중 15%를 혁신활동 시간으로 공식 부여함으로써 직원의 창의력 활동을 지원하는 15%원칙 소개
 - 최고의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Great Work place를 마련하는 삼성의 신 경영 마인드 소개
 - 환경부의 직원 애로사항, 가족커뮤니티 개설 등 복지혁신 소개
 - 하나로텔레콤 주니어보드의 임직원 현장체험 제안 및 뉴하나로 캠페인 활동 소개 등
- ▶ 주니어보드 명칭을 「새미래」로 정하고, 역할 및 운영방향 등 새미래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미션 : 국무조정실 혁신의 선도적 역할
 - 3대과제 : 창조적 미래전략 수립, 성과 및 정책품질 제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세부활동방안
 -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성과향상(POP UP)운동
 - 정책품질관리를 위한 매뉴얼작성 운동
 - 신명나는 혁신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복지 확대
 - 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 추진 등
- ▶ 주니어보드 소식지인 새미래를 2회에 걸쳐 발간 배포한 바 있으며,
 - 1호 소식지는 인쇄물로 직원 및 가정에 배포
 - 2호 소식지는 인터넷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
- ▶ 또한, 혁신퍼즐게임을 통해 혁신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 1회 당첨자 : 이희영(심평1), 김기영(심평1), 배찬영(심평1), 최연수(규제1), 박진호(혁신팀)
 - 2회 당첨자 : 김현숙(규제), 유희중(주한미군), 이가형(북권), 맹훈재(주한미군), 강석원(환경)
- ▶ 새미래 사업의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활동방향 및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고,
 - 직원복지확대(55.6%), 성과향상운동(25.9%), 업무매뉴얼작성 운동(14.8%), 사회봉사활동 전개(3.7%)
- ▶ 직원복지 확대를 위해 새미래내에 복지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혁신분위기 조성을 위한 POP-UP운동을 위주로 활동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원복지 확대 등 성과있는 활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미래

<혁신마당>



[가로열쇠]

- 우리를 소식지 「새미래」 제2호에 소개된 전경욱 한경심 의원의 취미생활 소개로서, 우리 교유의 심신수련법입니다.
- 우리를 소식지 「새미래」 제2호에 소개된 새미래주니어보드의 세부활동 방안 중 하나로서, PUP-UP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전 직원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 조성을 통해 '혁신생활의 일상화' 토대 마련을 위한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지요.
- 이는 직원 개인단위로 근육연수, 부양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배정된 복지예산(포인트) 범위 내에서 직원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새미래」 제2호에 소개된 국무조정실의 동정·소식란을 참고하세요.
- 00' 받는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000'은 이러한 성질로서 정부혁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지요 ^^
- 같아 속이 다름을 의미하는 한자성어입니다.
- 시골에서 북풍 또는 서풍을 의미하는데, '00' 바람.. 정겨운 순수 우리말입니다.
- 서면이나 말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전 우리실 벽면에 설치된 LCD에서 혁신에 있어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었던데, 동일 단어를 바꿔 생각하면 전혀 반대의 의미가 되는..거시하네요?
- 이름난 장수, 뛰어난 장군을 일컫는 말로서 성웅 이순신 장군이 '00'의 상징이지요. 장군이 계시면 김치도 나라에서 자급처럼 행동하진 못하겠어요?
- 장생불사한다는 열 가지의 물건으로서,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을 의미합니다. 상식(?)으로 적어보았습니당 ^^
- 요즘 이 섬에 대한 열 나라의 막달(?)로 인해 많이



국조실 주니어보드 구성원들은 보다 알찬 소식지 구성을 통해 정부혁신 분위기 확산과 마인드 조성을 하고자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이들 소식지의 내용을 함께하고자 이번 혁신퍼즐은 「새미래」 창간호, 제2호, 그리고 금번의 제3호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본적인 상식수준을 가미하여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들 속상하시지요? 태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3째줄.. "다마도도 우리땅 ♪ '00'은 당근 우리땅 ♪"

11. 부산 해운대 부근의 '단' 인데요.. 예전엔 부근에 비행장이 있었다고도 하던데..(잘 모르시겠으면.. 부산분들에게 물어보세용 ^^)

12. 대체국 구구려의 후예인 발해에 대하여 특히, 제10대 선왕 당시 동북아를 호령하던 전성기에 당시 당나라에서 지칭한 것이랍니다.

13. 소식지 「새미래」 창간호에 소개된 각 부처 혁신사례에 소개된 부처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음미해 볼만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데요.. "민원이 가장 좋은 '혁신' 아이디어" 즉, 민원문제의 해결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의 따뜻한 행정서비스자가 가장 창의적인 업무혁신인 것입니다.

14. 소식지 「새미래」 창간호에 소개된 조선시대의 혁신 사례입니다. 공작께서 이르시길 "나라를 다스릴 방법은 '도를 밝히는 것'(여구.. 이것은 25의 해설이기도 합니다.)이고, 학문으로 삼는 것은 '홀로 있을때 조심하는 것' 뿐이라고 하셨네요 ^^

15. 정성스럽고 참됨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국민에 대한 민주행정·봉사행정의 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6. 직장 등에서 말아서 하는 일.. 작업으로서 행하는 직무.. 각 실의관실별로 '00'분장이 잘 되어 있지요?한자로 생각해 보세요 ^^)

[세로열쇠]

- 우리실 사명입니다. 품질높은 정책조정, 조화로운 '0000' 잘 모르시겠으면 「새미래」 창간호 9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 우리실 주니어보드 게시판에 서진희 사무관님이 올린 KOTRA의 BSC 성과평가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TRA의 성과평가제도는 균형'0000'(BSC)에 기초하고 있는데..
- 재주와 슬기가 넘달리 뛰어난 아이..저요? 전 아닌데요 ^^,

8. 14번에서 말씀드렸는데.. '도를 밝히는 것'...(한자로.. ㅋㅋ)

10.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자본주의 경제가 불완전경쟁이기에 오는 폐해이기도 합니다. 특장분야에 대한 지배적 위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단독 또는 소수를 의미합니다.

12. 「새미래」 제3호에 소개되는 혁신 성공부처인데요.. 특히 BSC 적용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하여 대통령령에서 혁신의 모범사례로서 제시하였습니다.

17. 신라때 우리말을 한자로서 표음식으로 표기하던 글인데, 이두라고도 하지요

18. 식물성의 반대말이에요 ^^(%님 답답..)

19. '0000'도 유분수지.. 글세 뭐~ 다계사미? -.-; 이걸 봐~약?

사네마현? 사네마현? 헛갈리지 마세용.. 사네마는 극장이 사네마고, 정확한 이름은 사네마현입니다 ^^

20. 지도자로서의 통솔력을 의미합니다. 혁신을 위한 진정한 '000'은 혁신의 견인차이자 원동력으로서 작용하게 되지요.

21.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은 성과주의의 확립과 '0000'입니다. 국민을 수혜자가 아닌 '00'으로 보고 항상 '0000'을 위해 부단한 자기변화의 노력을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22. 좀 읽어보아예 말하면 '비네릴 워~러.. 일명 살아있는 물..

23. 이 문제도 무척 쉽습니다.. 서부의 반대.. ㅋㅋ

24. 혁신퍼즐 제도 나온 문제입니다만.. ^^ 우리의 미래상인데요.. "세계일류의 국가경쟁력을 실현하는 00000"을 3글자로 줄인말이지요.

24. 작업을 실시함을 의미하는데, 상품이 과잉생산되게 되면 사업가는 작업시간을 단축시켜 생산을 단축함으로써 '00' 단축을 하게 되지요(국어사전例) 애.. 미래

※ 정답을 맞추어 국무조정실 주니어보드에게 주시면, 추첨을 통해 1명을 선발하여 심판위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주니어보드



등록일: 2005년 3월 2일

발행일: 2005년 4월 29일 통권3호

(격주 또는 월간 비매품)

발행인겸 편집인: 새미래(주니어보드)

이창수(팀장), 김진곤, 김세용, 권용식,
신영진, 서진희, 유정미, 이순아, 육현수,
진선미

발행소: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국무조정실



편집후기

시작이 반이라고, 새미래 창간호 탄생을 위한 산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새미래 3호에는 얼마전 새미래(혁신 주니어보드)활동에 대한 직원 설문 조사 결과(직원복지확대를 중점으로 하되, 성과 향상운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과 병행 추진)를 반영하고 좀 더 알찬 내용을 담으려고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은 새미래에 큰 힘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혁신퍼즐 정답자에 대한 상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봄기운 가득 머금은 은행나무 새순을 보며... 새미래

